

<2017년 11월 1일 수요일말씀>

묶어서 매어 놓지 않으니 싸워 이겨라

본 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, 19장 11-1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에는 ‘**묶어서 매어 놓지 않으니 싸워 이겨라.**’ 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.

◎ <책임자>는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묶어서
<한 분야의 책>으로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.

◎ 오늘은 <핵심>을 탁탁 짚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핵적으로 짧고 굵게 말씀할 테니,
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집의 개가 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화난다고 묶어 놓으면,
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쫓아가지 못하여 제 할 일을 못 한다.

또 짐승들이 와서 싸우게 되면,
묶여 있으니 제대로 못 움직여 물려 죽게 된다.”

◆ (중요)

그리고 <하나님 앞의 인생들>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이와 같이 사람이 나 여호와 앞에 잘못하여 내가 화가 난다고
그 죄값으로 ‘죄의 사슬’에 묶어 놓으면
<사탄과의 싸움>에서도 패하게 되고,
<생활과의 싸움>에서도 패하게 되고,
<자기와의 싸움>에서도 패하게 된다.

고로 죄를 지어도 <회개>하면 용서하여 <죄>에서 풀어 놓고,
<사탄>과도 <겨루는 자>와도
<생활>과도 <자기>와도 싸워 이기게 한다.” (하셨습니다.)

◆ (중요)

그리고 <자기 앞의 자기 자신>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낙심이나 자포자기나 무관심으로 나 몰라라 하고
<자기>가 ‘자기 마음’이나 ‘몸’을 묶어 놓으면
그 역시 <사탄>이나 <겨루는 자>와 싸워도 패하게 되고,
<생활>이나 <자기>와 싸워도 패하게 된다.

자기 마음과 몸을 묶지 말고, 풀어 놓고 살아라.” 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◆ (중요)

<인생>은 마치 ‘땀지 않은 산길을 헤치고 가는 것’ 과 같습니다.
고로 ‘많은 잡초와 장애물’ 이 가로막아도 헤치고 가야 됩니다.

가다가 더 좋은 데가 나온다고 거기서 자리 깔고 살면,
그 주관권의 원시인이 됩니다.

<목적>을 향해, <주>를 행해, <삼위>를 향해
힘차게 계속 가야 됩니다.

멈추면, 리듬이 깨져서 ‘그 위치, 그 수준’ 에서 살게 됩니다.

그러면 ‘거기 차원의 인생’ 으로 끝납니다.

그러면 <영>도 ‘미완성의 영’ 이 되어
영~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.

<완성>을 향해 계속 가야 됩니다.

◆ 인생,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니

자꾸 유능하게 <자기>를 만들어야 됩니다.

<기술>도 배우고 <사는 법>도 배우면서 <자기>를 유능하게 만들어야
인생 살기 쉽고 힘이 안 듭니다.

모르면, 5~10배 더 힘듭니다.

◆ 선생도 배워서 하니,

<설교 쓰는 것>도 <잠언 쓰는 것>도 힘이 안 듭니다.

<말로 전하는 것>과 <글로 써서 전하는 것>은 정말 다릅니다.

<글로 써서 전하는 것>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

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, 표현을 잘해야 되고,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.

그런데 배워서 하니, 이제는 힘이 안 듭니다.

전에는 <설교>나 <잠언>을 쓰려면,

너무 머리가 아프고 겁이 났습니다.

지금은 영적으로 더욱 신령하게 만들어서

<영적인 깊은 말씀>을 쉽게 받아서 써 줍니다.

- ◆ <걸어서 가는 것>보다 <차를 타고 가는 것>이 힘이 안 듭니다.

고로 사람들은 <운전>을 배워서 차를 타고 쉽게 갑니다.

<자기 자신>은 ‘자동차’와 같습니다.

<자기라는 차>를 더 성능 좋게, 안전하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.

그러면 인생 살기 더 좋고 쉽습니다.

- ◆ 환경도 개발하고 집을 짓고 살면, 더 편하고 쉽고 좋습니다.

<인생>도 ‘자기’를 만들어서 살아가면,

인생이 두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.

- ◆ <뛰는 법을 배운 사람>은 운동장을 뛰게 하면, 좋아하면서 뛸니다.

그런데 <안 배운 사람>은 뛰게 하면, 오히려 지치고 고통입니다.

<인생>도 배우고 살면, 쉽습니다.

안 배우고 살면, 80~90세가 돼도 살기 힘듭니다.

- ◆ (중요)

하나님은 ‘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’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.
<섭리사 주의 말씀들>이 모두 ‘인생 사는 법’입니다.
그 말씀은 ‘잘되는 법’이며 ‘생명으로 가는 길’입니다.
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,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.
벗어나면,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.

◆ <자기 마음과 생각>을

하나님과 성령님과 잘 통하게 만들어 봐야 됩니다.

그래야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여,
자기 인생을 귀히 쓰게 됩니다.

◆ (중요)

- 자기는 못 한다고 <낙심>으로 자기 마음과 몸을 묶고,
- 약하다고 <자포자기>로 자기 마음과 몸을 묶고,
- 죄를 지었으니 안 된다고 <낙심과 포기>로 자기 마음과 몸을 묶고,
- 편하게만 살려고 <게으름>으로 자기 마음과 몸을 묶고,
- 자신 없다고 <적당히 살아가자는 마음>으로 자기를 묶으면
→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패하게 됩니다.

고로 <회개>과 <말씀>과 <기도>로 자기를 풀어 봐야 됩니다.
그래야 다시 뛰고 달리고 잘하게 됩니다.

◆ 자기가 못 해도 <섭리열차>를 타고 가니,
<타는 것>만이라도 잘하면 됩니다.

자기가 못 해도 <주>가 있으니,
<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>만이라도 잘하면 됩니다.

◆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인생은 마음도 생각도 불완전한 존재다.

고로 <나 여호와>와 일체 되어라.

<주>와 일체 되어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자기중심, 자기 합리화는

<자기>를 스스로 ‘함정’에 빠지게 합니다.

다른 사람은 모르니, 그 함정에서 꺼내 주지도 못합니다.

고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주일에 전해 준 말씀 중에서

<꼭 한 번 더 해 주고 싶은 말씀>을 해 주고 마치겠습니다.

◆ (중요)

지구 세상에서 육신이

<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최고의 시대>를 살고 있고,

영혼도 <주와 함께 최고 이상의 세계>로 가니

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하면 됩니다. 믿습니까?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있으니,

어떤 문제가 있어도 본인만 삼위와 주께 딱 붙어서 행하면,

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. 믿습니까?

◆ (중요)

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<하나님의 것>이 돼야 합니다.

그래야 <하나님의 것>이니,

하나님과 성령님이 딱 붙어서 앞장서서 해 주십니다.

◆ (중요)

걱정하고 근심만 하면,

자신이 없어져서 ‘자기 인생 운전’을 못 합니다.

<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최고의 시대>에서

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 하니, 하면 다 됩니다.

그러니 자기를 ‘낙심과 자포자기와 게으름’으로 묶어 놓지 말고,

삼위와 주를 딱 붙들고 해야 됩니다.

하고자 하면, 신의 힘을 받아서 초인이 되어 해집니다.

◆ 사람이 <기분>에 날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합니다.

고로 기분 좋~게 삼위일체를 사랑하고,

자기 마음을 딱 잡고 기분 좋~게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

<말씀 마무리>

◆ 자기가 죽도록 기도해 놓고 주 안에서 행했고,

이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으니

낙심도 포기도 말고 ‘주와 일체’ 되어 하기 바랍니다.

◆ <자기중심의 생각>은 차원이 낮아서 안 됩니다.

<주와 일체의 삶>은 ‘매일 이기는 삶’입니다.

◆ (중요)

<주>와 떨어지면 ‘하나님과 성령’ 과도 떨어지니, 약해서 안 됩니다.

<주>는 ‘하나님의 육’ 이 되어

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삼위와 일체 되어 세상을 다 이겼으니,

주 앞에 사탄도 굴복하고 세상도 굴복했습니다.

고로 누구든지 주와 함께 하면, 반드시 이깁니다!

◆ (중요)
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

<신부들의 것>은 결사적으로 잘되게,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.

이를 절대 믿고,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, 자기를 묶지 말고

힘내서 행하기 바랍니다!

◆ (중요)

<절대적인 말씀>을 들었으니 ‘절대’ 믿고 행하면,

사탄도 불의도 세상도 다 이기며 가게 됩니다!

<말씀>은 ‘하나님과 성령과 주’ 입니다.

<말씀>을 떠나면 ‘능력’ 이 사라집니다. ‘힘’ 이 사라집니다.

<절대 말씀, 절대 성공>입니다!

◆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믿음과 행실의 조건 세우기!

주를 머리로 삼고 주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되기! -입니다.

◆ 여러분 모두에게 성자와 성령의 평강을 빕니다. (아멘.)